

여수낭만포차 만족도 1위 '친절도'...하위 '위생·음식값'

이용객 485명 설문...가격표 표시 '대(4인)·중(3인)·소(2인)' 선호 시, 바가지요금 문제 등 해결 위해 운영협의회와 자정 노력 나서

올해 여름 여수낭만포차를 찾은 이용객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친절도'였고, 가장 만족도가 낮은 부문은 '위생 상태'와 '음식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여수시가 지난 7월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2일간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답했다.

여수시는 최근 바가지요금 불만이 잇따라 생긴 낭만포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를 벌이고 조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설문조사에는 모두 남성 237명·여성 248명 등 485명이 참여했다.

조사는 친절도, 낭만포차 청결 상태, 음식 만족도, 화장실 관리 상태, 음식 가격판 표시 의견, 낭만포차 만족도, 낭만포차 운영 등 13개 항목을 물었다.

낭만포차를 이용할 때 가장 만족한 부분을 묻자 응답자의 36%인 203명은 '친절도'를 꼽았다.

음식 맛(29%·163명), 주류 가격(25%·14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 위생상태·음식 가격'은

10%(61명) 비중으로 가장 낮았다.

조사에서 만족(매우 만족+만족) 이상 비중은 '친절도'(88%·426명)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낭만포차 청결 상태'(85%·409명), '주류 음식 만족도'(82%·398명), '화장실 청결·비품 상태'(65%·29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문한 음식에 만족하지 않은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음식 가격'(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음식 양(36%)과 음식 맛(10%)을 들기도 했다.

음식 가격표 표시와 관련해서는 '대(4인)·중(3인)·소(2인) 표시'를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률이 37%(176명)로 가장 높았다.

현재 주로 이용하는 '4인 기준표시'는 34%(162명)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다양한 가격대 구성(29%·142명)을 원하기도 했다.

친절 응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는 '밝은 표정'(34%·196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손한 말씨(29%·164명)와 메뉴 설명(20%·112명), 고객에 관한 관심(15%·83명), 기타(2%·14명) 등도 있었다.



여수시는 올여름 휴가철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이용객 48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벌이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설문조사에 참여한 485명 가운데 연령대로는 20대가 185명(3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137명, 40대 84명, 50대 이상 79명 순으로 조사에 참여했다.

거주 지역별로는 부산·울산·대구·김해 등 경상도 136명(28.0%), 광주·목포·순천·익산 등 전라도

116명, 용인·수원·인천 등 경기 99명, 충청 65명, 서울 59명, 강원 10명 등 순으로 많았다.

설문 참여자에게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기념품을 나눠줬다.

여수시는 최근 지적된 바가지요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낭만포차운영협의회와 자체적 자정 노

력을 들이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자정 노력 등을 통해 낭만포차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좀 더 나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여수 대표 관광 명소의 명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친환경 비료 기업 142억원 규모 투자 유치

디와이에코사이언스와 협약

순천시가 친환경 비료 생산업체와 142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순천시와 ㈜디와이에코사이언스는 최근 '친환경 미래농업 상생·발전'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디와이에코사이언스는 순천지역에 142억원 규모 투자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8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순천시는 내다봤다.

㈜디와이에코사이언스는 농업용 완효성 비료 제조기업이다.

올해 설립했음에도 100억원 이상 규모 수출을 달성하는 등 신기술 특허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제조 역량을 갖췄다.

특히 인도네시아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대표 제품인 완효성 비료는 농업용 친환경 비료로, 수질·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내건 순천시는 친환경 농업 기업 유치를 통해 탄소중립 등 생태경제 확산



노관규(왼쪽) 순천시장과 조영국 ㈜디와이에코사이언스 대표이사 등이 지난 25일 투자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는 바이오, 웰니스(웰빙+피트니스), 미래첨단, 우주, S-콘텐츠 산업 기반 5대 캠퍼스(핵심거점)를 중심으로 경제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5대 캠퍼

스를 중심으로 고차원의 산업 지도의 영역을 확장해 차세대 신산업을 선도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순천으로 투자 유치를 결심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 친환경 쌀 '오메가3' 소비 늘리기 협약

사조대림 등 4곳과...생산 지원·품질 향상·판로 확대 등 협력



구례군(군수 김순호·앞줄 가운데)과 ㈜사조대림, 구례농협, 구례오메가3영농조합법인 등이 최근 협약을 맺고 오메가3 쌀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구례군 제공>

구례 대표 친환경 쌀 '오메가3' 소비를 늘리기 위한 상생 협약식이 열렸다.

구례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사조대림, 구례농협, 구례오메가3영농조합법인과 '오메가3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김택준 ㈜사조대림 본부장, 노성원 구례농협 조합장, 고상춘 구례오메가3영농조합법인 이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 구례지역의 벼 친환경 농산물 인증 계획 면적은 175ha이다.

이 가운데 25%인 44ha는 오메가3 쌀이 차지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네 기관은 오메가3 쌀의 품질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생산자재 지원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제품개발 및 판매, 원료매입과 가공처리, 쌀 생산단지 조성과 쌀의 원료생산, 오메가3 쌀 납품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오메가3 쌀은 2012년 처음 생산된 뒤 2014년에는 특허를 받기도 했다. 아이튠스생협에는 해마다 150t 납품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9월 1~3일 곡성서 '섬진강마을영화제'

개막작 새만금 간척지 다룬 '수라'

'2회 섬진강마을영화제'가 오는 9월1~3일 곡성군에서 개최된다.

섬진강마을영화제는 목포 국도1호선영화제와 함께 전남의 대표 독립영화제다.

'우리가 지켜야 할...'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올해 섬진강마을영화제는 기후 위기, 코로나19 등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다음 달 1일 곡성문화센터 동아아트홀에서 열리는 개막작에는 '섬진강국제실현예술제' 김백기 예술감독의 행위예술과 '춤추는 평화' 홍순관(가수) 대표의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개막작은 최근 챔버리대회를 논란이 된 전북 새만금 간척지의 바다생물을 영상으로 담은 황은 감독의 '수라'로 결정됐다.

해녀들의 삶을 다룬 '물꽃의 전설' 등 6편의 독립영화도 동아아트홀, 작은영화관, 미술관, 낭만가옥 등에서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함께 상

영된다.

김탁환·박진숙 섬진강마을영화제공동운영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지난 일 년 동안 묵숨처럼 소중한 것을 많이 잃었다"며 "또다시 구경만 하다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에 영화제에서 함께 볼 영화가 빛이 돼 어둠을 깨우고 상처가 난 자리를 보듬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제 명예 운영위원장인 이상현 곡성군수는 "자연과의 교감과 함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제 참가는 네이버 블로그 '섬진강마을영화제' (blog.naver.com/sjff2022)를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바로 참가할 수 있다. /곡성=박종득 기자 pjtk@kwangju.co.kr

고흥군 치매 예방 사업 '꽃보다 어르신' 시작

포두 신기마을 5개월 예방 교육

고흥군이 고령 주민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제2의 인생! 꽃보다 어르신'을 지난 25일부터 시작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고흥군은 '2호 치매안심마을'인 포두면 신기마을에서 연말까지 5개월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

치매 안심관리 전문 강사가 마을을 찾아 '오감 자극 활동'과 화해, 요리 등 다양한 활동을 가르친다. 매주 3회씩 모두 40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

외부 문화 체험활동인 '성남! 마실 가세'에서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을 체험하고 분경문화박물관·작은영화관에서 문화활동을 한다.

또 포두파출소와 협업체 신기마을 치안 강화 할 방침이다.

고흥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검사비와 치매 치료관리비, 조호 물품 등을 지원하고 치매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고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이웃과 함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마을"이라며 "치매로부터 안전한



고흥군 보건소와 고흥군 치매안심센터가 포두면 신기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지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 안심마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광양제철소가 광양 종마노인복지회관에서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마음이음' 사업비 전달식을 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광양제철소, 독거노인 돕기 4000만원 기탁

광양시 '마음이음' 사업에 전달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진수)가 홀로사는 노인들을 돕기 위한 '마음이음 프로그램' 사업을 위해 4000만원을 기탁했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철호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광양시의장, 김재경 사랑나눔복지재단이사장, 정병관 종마노인복지관장, 재능봉사단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비 전달식을 가졌다.

마음이음 사업은 광양지역 독거노인의 정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으로서 사회적 이주인 노인문제에 치유형 프로그램을 접목했다.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해 기존 광양시 전체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 비중이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력계층의 사회화를 돕고 지역사회에 정서적 안정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됐다.

'마음이음' 사업은 포스코그룹 및 협력사 임직원들이 매월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급여 1%로 운영되는 포스코1%나눔재단의 지정기탁금으로 진행된다.

올해로 7년차를 맞은 해당 사업은 4900여명에 게 지금까지 1억 6500만원이 투입됐다. 노인들은 4600여명의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원들이 참여하는 정서 치유형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위한 밀착 관리를 받고 있다.

새로 시작되는 7차년도 사업을 통해 꽃꽂이 재능봉사단, 전래놀이 재능봉사단, 발마사지 재능봉사단 등 제철소 재능봉사단원들이 노인들을 대상을 맞춤형 정서안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양제철소는 이와 함께 포스코1%나눔재단의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사회적 관계회복을 위한 문화 체험활동 ▲주거적인 가정방문을 통한 안전관리 및 안부 살피기 ▲생활 필수품, 생일상, 명절나기 키트, 여름 보양식 제공 등 다양한 생계형 밀착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